

안전보다 돈이 우선 ... ‘빨리빨리 공사’가 부른 참사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콘크리트 양생 4주 걸리는데 1주일에 1개 층씩 올려 골조공사 마무리 안된 상황에서 실리콘 등 인테리어 작업도 상주 감리 제 역할 안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는 안전은 뒤로한 채 속도만 중시한 건설업체의 성과주의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3면〉

콘크리트 타설조차 끝나지 않은 등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호 실리콘·스프링클러·타일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토록 작업자들을 투입시키는가 하면, 후속 작업을 위해 시공사측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등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현장 작업자들 증언까지 터져 나오면서다.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붕괴사고와 관련,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養生)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는 점에서 상주 감리 제 역할이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12일 광주일보와 만난 아파트 현장 작업자들은 전날 실종된 6명의 작업자 중 3명과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로, 시공사측의 갑작스런 지시로 애초 계획했던 순전 현장 대신, 사고 현장에 부랴부랴 투입됐다며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작업자들은 “통상 6명이 한팀으로 사고 당일 순전 작업 일정이 있었는데, 당일 오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공정을 요구해 3명이 현장에 투입됐었다”고 말했다. “목요일(13일)에 우리가 들어오니 그 전까지 창호 실리콘 작업을 무조건 마감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창호 작업의 경우 통상 골조 공사가 끝난 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윗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고 아랫층에서 창호 실리콘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 속도를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는 기간이 겨울철의 경우 3~4주(최대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1주일에 아파트 한 개층이 올라간 사고현장의 건설 속도는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도 현장 작업자들 사이에서 나온 내용이다.

국도교통부가 지난해 2월 발간한 콘크리트 설계 기준인 ‘한중콘크리트’ 자료집에는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 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부재 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타설 시 콘크리트의 최저 온도는 10도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돼 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당일 눈이 내렸다는 점, 영하의 온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주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인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건축 감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부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3층 외벽에 철근과 잔해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사고 현장 옆 등에서 작업자들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양생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감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허술한 작업장 출입·안전관리도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들은 “사고 현장의 경우 흉체 체크로 출·퇴근을 관리하면서 출입자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당일 오전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통화를 한 실종된 동료들 출입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사전 징후와 적신후 등을 관계 기관이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낙하물이 떨어지는 민원을 비롯, 2019년부터 324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로 인해 13차례의 행정처분과 2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파트 건축 관련 민원도 30여건 접수됐고 지난 침하 민원이 들어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돌발적인 사고들도 사후에 분석하면 사전예고와 조짐들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해결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 주민 피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선씨는 “사전 징후에도 구청은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응답했다”고 말했다.

/정병호·김민서 기자 jusbh@kwangju.co.kr

문 대통령 “근본원인 조사·안전대책 강화” 광주시, 현산 전 건설현장 공사 중지 명령

운암3단지 현산과 계약 해지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한 사고와 관련,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도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 본부를 구성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강한 유감”이라고 비판한 뒤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이번 사고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顛倒)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국토부·발주청·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다. 각 위원은 현장 조사, 설계 도서 등의 관련 서류 검토, 설계·시공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에 이날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열고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을 포함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계림동(1750세대), 화정동 1블럭(316세대), 화정동 2블럭(389세대), 학동 4구역 재개발, 운암 3단지 재건축 등 광주에서 4개 구역, 5건의 아파트 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었던 화정 1·2블럭,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계림동 아파트 건설

은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운암 3단지와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은 아직 착공 전이다.

이날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비조합은 시공사 컨소시엄 주체들을 불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운암3단지 재건축에는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날 조합과의 간담회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불참했다.

조합 측은 “학동 참사에 이어 서구 화정아이파크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시공 계약 해지 여론이 높다”며 “특히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부실 공사 의혹까지 제기돼 이런 기업과 사업을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향후 조합원들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공 계약 해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면 정식 조합 총회를 개최, 시공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S
THIS IS FOR YOU.

Mercedes-Benz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주소: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동대로 520(수환동)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동대로 516(수환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동대로 603(수환동)
수환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동대로 520(수환동)

정부 공인 표준 정비 및 등급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 도상 : 3.8, 고속도로 :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와 의한 면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할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용어미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